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12호 2024년 12월 22일(다해) 대림 제4주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미호종개(*Cobitis choii*)

제1독서 미카 예언서 5,1-4ㄱ

화답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손상오 신부 곡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10,5-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홍보·전산
오픈카톡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휴천동 본당 주임
윤정엽 세례자 요한 신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대림 4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는 잘하셨습니까?

성탄 판공을 통해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또한 대림 4주간 동안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설레임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 듭니다. 우리 교구민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삶 안에서 하느님의 존재와 기도의 힘을 통해 하느님의 대한 믿음을 가며 살아갑니다.

사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것을 믿는 것만은 아닐 것 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에게 벌어진 ‘예수님 잉태’라는 사건을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믿음이라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없이 창조하지 않으신 하느님, 너 없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긴장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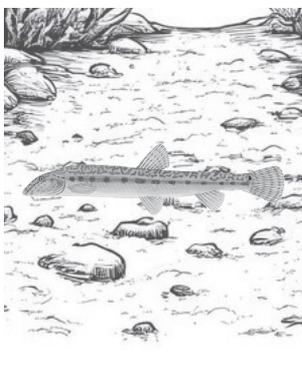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을 통해 당신을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성탄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굳은 믿음이 그 엄청난 사건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다가오는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세요 <미호종개>

표지 사진 설명



미호종개는 미꾸리과에 속하며 금강지류의 미호천과 금강 일부 수계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하천 중·상류 지역의 수심 30~50cm인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서식하며 주로 부착조류(수초)를 먹습니다. 몸길이는 약 8~10cm로 몸 앞쪽과 뒤쪽은 가늘고 중앙은 굽습니다. 머리는 옆으로 납작하고 주둥이는 뾰족하며 수염은 3쌍이 있습니다. 몸 측면의 위쪽과 등 쪽에 불규칙한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미호종개는 물의 흐름이 느리고 바닥이 모래와 자갈로 된 얕은 하천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무엇이든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느림도 있어야 세상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회양목은 느린 성장 덕분에 재질이 치밀하여 정밀한 목공예에 적합한 고급 목재가 되었습니다. 하천 정비나 댐 건설 등으로 빨라진 유속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미호종개나 흰수마자를 보면서 느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의성본당-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사가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립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이사 9,1-2) 이제 우리도 빛과 희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평화의 촛불로 거듭나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을 알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와 해제(12월 4일),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미달(12월 7일)과 가결(12월 14일)이라는 매우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은 국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계엄령이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큰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 1차 탄핵이 정족수 미달로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주일간의 긴박한 시간을 보낸 후, 국민들의 더 적극적인 응원과 열망 속에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300/204)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며칠 앞두고서 하느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성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들이 부디 평화의 촛불로 승화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갈등의 상처로 얼룩진 어둠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 국가이기주의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해와 평화를 거부하고 있고,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여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의 삶은 돌보지 않고 외면합니다. 우리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서로를 갈라서게 하는 우리들의 이기심과 탐욕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은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를 주님의 눈으로, 희망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성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적이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미소한 존재였지만, 주님의 성탄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으니, 빛과 희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경축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마태 5,14), 평화의 촛불로 거듭나 성탄의 따뜻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예천 성심 어린이집>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꼬마농부 사랑의 깍두기 만들기체험)

- 1)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 식물의 소중함을 알아보았어요.
- 2) 배추, 무를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농부에 대한 고마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보았습니다.
- 3) 직접 수확한 배추와 무를 이용하여 김치 담그기를 해보며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음식물 남기지 않기 실천에 앞장서 봅니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교님 성성 기념일

12월 2일(월)에 교구청에서 <주교님 성성 기념일> 23주년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상주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감사의 날

12월 3일(화)에 상주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에서 <감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후원자 감사의 날

12월 6일(금)에 보름동산 경당에서 <사회복지법인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주가르멜여자수도원 종신서원 미사

12월 7일(토)에 상주가르멜여자수도원에서 <종신서원 미사>가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농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콜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짬&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영덕상회

동광어시장 내 1호, 2호. 각종건어물
신천욱 바오로, 최정혜 데레사
영덕군 강구면 대게로 108-1
전국 택배
T.010-3453-0205

안동제일안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안성형, 드림렌즈
원장 정재엽 토마 / 원장 서의태 임마누엘
안동시 대안로 107 신시장 태평양약국 2층
T.054-855-7582~3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믿을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숙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교구장 동정



12월 24일 주님 성탄밤미사(청송)
12월 25일 주님 성탄 낮미사
12월 29일 희년 개막미사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2월 24일 양호준 **델피노** 신부
12월 26일 남정홍 이한결 **스테파노** 신부
12월 27일 정희완 손성문 이동명
최한별 **사도요한** 신부
안영배 김요한 **요한** 신부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12월 26일 이한결 **스테파노** 신부
12월 27일 이요람 **요람** 신부
12월 29일 윤성규 **바오로**
윤여홍 **시몬** 신부

교 구

수슈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 10(금) 20:00/ 2. 7(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제 단 체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봉사자 모집/안내

성령쇄신의 은혜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청 기간: 12. 15(주일)~ 29(주일)
신청. 면담: 010-5105-5993 (담당 신부)

청년연합회 총회 및 친교의 날

일 시: 12. 29(주일) 12:00~ 19:00
장 소: 계림동 본당 및 상주지구 탐방
*교구 내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남성 제47차 꾸르실로

기 간: 1.9(목) 15:00~ 12(주일) 17:00 [3박 4일]
장 소: 농은 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추천 인원: 각 본당 2명 이내
접수 기간: 12. 23(월)까지
신청 자격: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신청서 참조)
신청처: 본당 신부님, 꾸르실로 간사

안동ME협의회 신년 미사 초대

일 시: 1. 11(토) 10:30~
장 소: 교구청 강당
참석 대상: ME주말을 수강하신 모든 부부님
문의 및 신청: 010-6500-8408
* 안동ME 활성화를 위한 신년 미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 도 회 · 피 정

청주 초정성령회관 2박3일 송년대피정

일 시: 12. 27(금) 20:00~28(토), 29(주일) 14:00
회 비: 2만원(청소년 무료)
강 사: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셔틀버스: 조치원역 18:20 출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출발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 시: 2. 7(금)~ 9(주일)
장 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 상: 건강한 고1~ 35세 미만 남성
접수 마감: 1. 31(금)
문 의: 010-6221-3520

성모술숲(청도)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 간: 매월 둘째주 금~ 일요일 (2박 3일)
일 자: 1. 10(금)~ 12(주일)/
2. 7(금)~ 9(주일)/
3. 7(금)~ 9(주일)/
4. 11(금)~ 13(주일)
문 의: 010-3209-3955 [문자접수]

안동교구사회복지회 금성카리타스요양원

대 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주 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입소 문의: 054-832-6400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영양 고춧가루 판매

보통맛: 1kg-38,000원, 매운맛: 1kg- 39,000원
고추장용 보통맛: 1kg- 40,000원
매운맛: 1kg- 41,000원
주문 전화: 010-3813-4405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 주 금요일, 20:00~ (토) 01:00
강 사: 한연흠 신부, 김응렬 신부 외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교 육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 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 용: 가톨릭 신학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 접수: 11. 11(월)~ 2. 14(금)
문 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안동 교구 역사관 관람 안내>

장 소: 안동시 서문동로 147
(목성동 성당 입구)
요 일: 수요일~ 주일
시 간: 10:00~ 16:30(점심시간
12:00~13:00)
문 의: 054-852-2019,
Fax) 054-856-2023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착즙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 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010-8962-9600

